



# 창립 73주년, 13개 계열사 둔 그룹으로 성장 PET병 재활용 위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절실

## 80년대부터 PET병 생산

올해로 창립 73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삼양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맞추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신소재개발을 통한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 의약, 금융, 해외사업 등 미래 지향적인 첨단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확고한 도약기반을 구축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더욱 앞서가는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1924년 설립되어 1955년 제당사업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근대산업에 진출한 이래 69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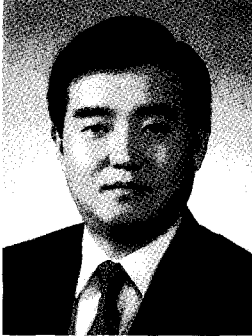
는 폴리에스텔 섬유사업에 진출하여 전주에 대단위 공장을 설립했으며 70년대에는 배합사료 사업과 이온교환수지사업에 참여하여 정밀화학 및 환경분야의 기초를 다졌다.

80년대에는 PET병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삼양제넥스와 신한제분을 식품관련 계열사를 인수하였으며 삼남석유화학과 삼양화성 등 고분자화학 관련 계열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90년대에는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 종로에 위치한 삼양사 본사



▲삼양사 대표 사장 김운

본격적인 사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해외사업, 환경엔지니어링, 의약사업 등에 직접 진출하였고 금융,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에도 진출하기도 했다.

이로서 삼양사는 섬유, 식품, 사료, 화성, 환경엔지니어링, 의약

사업을 수행하는 복합제조업체이자 13개 계열사를 둔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96년 3월 SBU(Strategic Business Units:전략적사업단위)제도를 도입하여 책임경영 풍토를 강화하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정보화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세계 선진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4개팀으로 이루어진 화성본부

80년대부터 PET병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화성본부를 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삼양사는 소주, 생수, 식용유, 장유, 세제, 화장품용 상압병과 콜라, 사이다용 내압병, 우유탄산 음료용 내열·내압병, 주스, 스포츠음료, 커피, 차용의 내열병을 생산하여 국내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본부는 화성기획팀, 용기SBU팀, 플라스틱SBU팀, 이온수지SBU팀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화성기획팀은 화성본부 전반에 걸친 기획업무 및 신규사업전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외국 관련 업체들과의 기술제휴를 담당하고 화성본부 각 부문에 대한 원자재 및 지자체의 내수

구입 및 수입을 수행한다.

용기SBU팀은 PET병 제작 및 이에 대한 국내 판매, 해외수출과 현재 시중의 각종 음료의 PET용기의 상당량을 조달한다.

용기SBU소속의 재활용팀에서는 폐PET병을 수거하여 이를 재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용기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폐PET병으로부터 섬유를 뽑아내어 이를 실용화하는데 성공했다.

플라스틱SBU팀은 기존의 금속제 구조물 및 성형품을 대체하는 미래의 첨단 소재로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이의 합성제품을 만들고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생산제품에는 PBT(폴리부티렌 테레프탈레이트) 레진을 비롯 PC-PBT ALLOY(혼합), PC-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ALLOY, PC-PET ALLOY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분야는 전자회로 응용품에서 자동차범퍼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온수지SBU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온교환수지를 생산, 이에 대한 판매를 수행하고 있다. 이온수지는 공장 및 각종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삼양사에는 국내 전의 산업현장에 자사의 생산제품을 공급하며 현재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

#### 94년 재활용공장 건설

삼양사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폐 PET병을 재활용하기 위해 95년 PET병 재활용사업에 진출했다.

이를 위해 94년 미국의 PTI사로부터 첨단 폐



▲PET병 재활용 점퍼

음료병, 포장재, 수세미, 카펫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한 시화공단의 폐PET병 재처리공장은 대지 5,400평, 연건평 1,500평, 연간 1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폐PET병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설립된 이 공장은 95년 10월부터 가동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삼양사는 PET원료 생산에서부터 PET병의 생산 및 소비자가 사용후 버린 폐PET병을 수거, 재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유통, 재활용의 사이클을 형성, 폐PET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삼양사 재활용팀은 국내에서 최초로 폐PET병을 재활용하여 옷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그동안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었던 폐PET병의 재활용 용도가 다양화됨은 물론 우리

나라 재활용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기SBU팀 유창현 과장은 재활용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활용공장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유 과장은 "PET병은 소비자가 분리해 배출하면 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저희쪽으로 넘기는데 그 운송비와 PET병비용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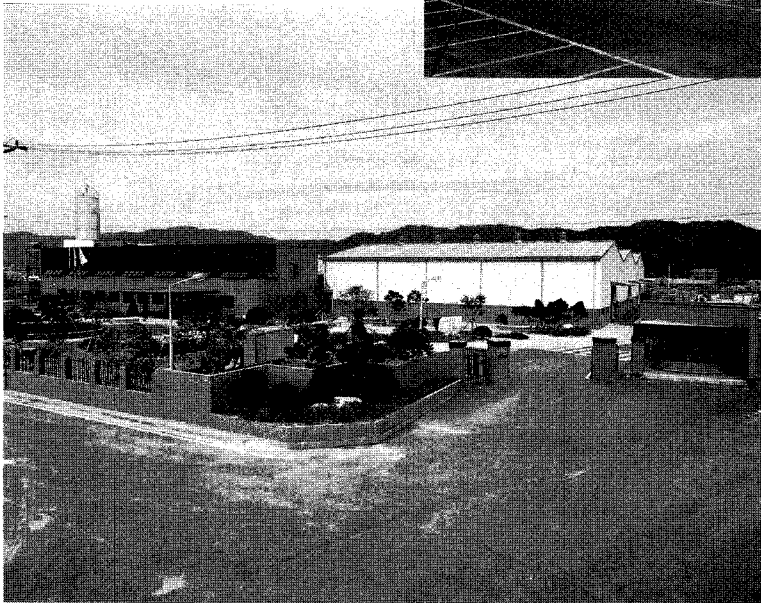
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거된 것 중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있어 기계파손도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공장운영은 사실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삼양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정부는 PET병에 대해 제조업체에 폐기물예치금을 부과하여 지난해만도 총 62억을 받아들이는데 반해 불과 15억만이 환불됐다.

환불되지 않은 금액은 다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다른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PET병에 있어 라벨에 대한 것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라벨로는 OPP와 PVC가 있는데 비중차이로 분리하고 있는 재활용설비 여건상 OPP가 가장 적합합니다. 더욱이 PVC는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서서히 사라지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그 대체재로

▶삼양사 시화공장



◀PET병을 생산하는 대전공장

OPS라벨, 폴리에틸렌 스트레치라벨 등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여건상 대체되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유 과장은 앞으로 정부의 재활용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97년 상반기 매출액 1조원을 넘기고 있는 삼양사는 PET병사업에 있어 기존 음료업체들이 주스류 생산에 치중하고 있고 유가공 업체의 주

스시장 신규진출도 예상됨에 따라 일본지역으로의 진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열병 라인의 증설을 추진하여 판매증대는 물론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선하 기자